

2006학년도 고3 국어 독서 문제지

1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지력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그러한 명칭에 어울리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량 살상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은 주목할 만하다. 조건화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와는 달리, 그는 동물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을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의 하나로 보는 그는, 공격성은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하나이기에, 인간에게도 자신의 종족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생득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단란된 형태로 공격성을 띤 종족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이것이 인간이 호전성에 대한 열광을 갖게 된 이유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로렌츠의 관찰에 따르면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이 같은 종의 구성원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 중무장한 동물의 경우 그들의 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종에 대한 공격을 제어할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그에 비해서 인간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종을 죽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억제 메커니즘에 대한 진화론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살상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억제 메커니즘을 지니지 못한 인간에게 내재된 공격성은 자기 종을 살육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 내재된 공격성을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로렌츠는 회의적이다. 우선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에 이를 제거한다는 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으며, 또 공격성을 최대한 억제시킨다고 해도 공격성의 본능은 여전히 ㉡ 배출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츠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그는 이성이 인간의 공격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공격성의 본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 첫째 방안은 자신에 대해 자각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인간의 공격성의 본질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하는 이성적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타고난 공격성의 배출구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호전적 열광을 충족시킬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격성의 대상이 될 만한 개인들이나 다른 집단과의 우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들이 몸 바쳐 봉사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처방을 통해 로렌츠는 인간의 공격성이 초래할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1. 위 글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보았다. 잘못된 것은? [1점]

억제 메커니즘	없음	있음
살상 능력		
큼	[A]	[B]
미약함	[C]	[D]

- ① 기술이 발달한 이후의 인간은 [A]에 해당한다.
- ②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은 [B]에 해당한다.
- ③ 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인간은 [C]에 해당한다.
- ④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D]에 해당한다.
- ⑤ 일반적인 진화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B]와 [C]이다.

2.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능에 대한 상이한 이론을 대비하며 소개한다.
- ② 인간의 이성에 대한 특정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③ 인간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소개한다.
- ④ 인간의 과거 생존 방식과 현재 생존 방식의 차이점을 밝힌다.
- ⑤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동물의 세계를 설명한다.

3. 위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는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지어 흥미해 볼 만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알렉스는 폭력적 성향의 인물로, 길거리의 노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을 일삼는다. 그러다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그는 그곳의 강압적 교정 기술에 의해 ‘착한 인간’이 된다. 그 후 그는 나쁜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하고 심한 고통을 느낀다. 사회로 돌아온 후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그는 절망 끝에 자살을 기도한다.

- ① 인간의 공격성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공격성의 원천인 사회 환경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인공만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야.
- ③ 주인공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더라면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 ④ 주인공이 다른 모험적인 일이나 경쟁적인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폭력적인 공격 충동을 해소했다라면 좋을 것 같.
- 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4. ㉠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늑대는 목덜미를 자신의 이빨에 들이대며 복종의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늑대를 죽을 정도로는 물지 않는다.
- ② 호랑이는 소변이나 대변을 배설하여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다른 맹수에게 경고를 보낸다.
- ③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사자들의 맹렬한 싸움은 종족 보존에 유리한 2세를 얻는다는 순기능이 있다.
- ④ 비둘기는 새장에 갇혀 도망갈 수 없는 상대 비둘기를 죽도록 쫓아대는 행위를 하곤 한다.
- ⑤ 까마귀는 낮 동안에 고양이와 눈에 띄기만 하면 떼를 지어 공격해서 멀리 쫓아버린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1점]

< 보 기 >

‘배출구’는 ‘배출’과 ‘구’가 합쳐진 단어로써, ‘기능 + 장치’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 ① 소형차 ② 탈수기 ③ 조명등
④ 반사경 ⑤ 소각로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 (가)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의 주된 내용인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시장 기구를 통한 시장적 의사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기구를 통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 한가지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거나 이들은 저절로 조화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둘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 (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즉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자신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차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며, 철저하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 (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적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한다. 투표를 통한 결정이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반대를 한 소수도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거래를 원하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항상 모든 당사자의 완전 합의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 (라)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적으로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여 발전하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시장경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물질 기반을 제공하며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 (마)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치와 경제의 기본 골격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과 타협과 참여의 정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 경쟁,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원 분배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전제로 한다.
②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사상을 토대로 한다.
③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를 존중한다.
④ 일반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경제적인 효율성도 크다.
⑤ 좋은 경제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일반적 인식의 문제점을 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② (나) : 두 방식의 차이를 밝혀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③ (다) : 두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결론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④ (라) : 논의를 전환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⑤ (마) :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8. (마)와 <보기>를 관련지어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특권 집단은 각종 로비나 압력 등을 행사하고 교묘하게 여론을 조성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유도한다. 이에 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심이 적으며, 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 전체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각종 경제적 비용과 효용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무너지게 된다.

- ①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구나.
②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거야.
③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의식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
④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시장의 원리에 따른 치밀한 분석 작업도 전제되어야 해.
⑤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좀 더 커져야 할 거야.

9. ㉠의 ‘한’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다.
② 한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생각이 간절해진다.
③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다.
④ 이번 일이 잘 풀리는 바람에 한시름을 놓았다.
⑤ 설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왜 양자는 음자보다 따뜻할까? 태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어떻게 적절한 매질도 없는 우주 공간을 건너 아득히 먼 지구의 물체들을 데울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열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고체가 녹거나 액체가 증발하는 것은 열소와 고체 혹은 액체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화학 작용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럼퍼드와 마이어, 줄 등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열소’의 존재는 부정되고 대신 ‘열에너지’의 개념이 확립된다. 열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클라시우스였는데, 그는 기체의 열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에너지이며, 따라서 온도는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맥스웰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함을 밝힘으로써, 결국 열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임이 밝혀졌다. 모든 물체의 입자들은 평균 위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동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온도는 바로 이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빛의 정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 이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는데, 이는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전자기파의 존재는, 전류(전기장)가 자기장을 만들어 냄을 밝혀낸 앙페르의 실험과 자기장에서 전류가 만들어짐을 확인한 패러데이의 실험,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맥스웰의 이론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해졌다. 앙페르는 나란히 놓인 도선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과 도선을 원통형으로 감아서 만든 코일 - 이를 ‘솔레노이드’라고 한다. - 에 전류를 흘리면 자성이 강한 자석이 됨을 확인하였고, 패러데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에 자석을 통과시키면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에서 전류가 생겨남을 확인하였다.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맥스웰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을 정리하여 ‘맥스웰의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세웠으며, 이 이론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추론될 수 있었다.

도선에 갑자기 전류를 통하게 하거나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이 자기장은 2차적인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2차적인 자기장을 만든다. 이처럼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파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이며, 맥스웰은 이 파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는 계산을 해 낸 후 “빛 자체도 일종의 전자기파이다.”라는 천재적인 결론을 내린다.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연속적인 변화를 반복하면서 전파해 가는 전자기 파동인 것이다.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전자기파가 매질 없이도 전파된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햇빛이 텅 빈 우주 공간을 건너올 수 있는 이유가 알게 되었다.

㉠ 태양에서 오는 것은 열의 입자가 아니라 ㉡ 전자기파이며, 이것이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물체를 진동으로 간섭한다. 그리고 이 진동이 물질의 입자들과 상호 작용하여 그 ㉢ 입자들의 운동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물질의 온도를 높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양의 빛은 아무런 매개물 없이 우주를 건너 우리 지구의 물체를 데울 수 있는 것이다.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새로 발견된 과학 원리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④ 상반된 관점의 해석을 종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1. 밑줄 친 부분들의 관계가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현우가 무심코 던진 말이 지수를 슬픔에 빠지게 했다.
- ② 여자는 결혼으로 아내가 되고 출산으로 어머니가 된다.
- ③ 좋은 붓이 있어도 좋은 뜻이 없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 ④ 훌륭한 공격수만이 아니라 훌륭한 수비수도 있어야 좋은 팀이 만들어진다.
- ⑤ 생산은 소비를 유발하고, 소비는 투자를 유발하며, 투자는 생산을 가능케 한다.

1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소개된 맥스웰의 태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맥스웰은 처음에, 빛의 전자기적 파동에서 ‘에테르’가 매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 호이겐스에 의해서 그 존재가 주장되었던 에테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공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신비로운 물질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맥스웰 역시 이것이 빛의 파동을 전파하는 매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① 상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개선했다.
- ② 다양한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이 타당함을 증명하려 했다.
- ③ 자신의 이론과 상반되는 이론을 끌어들이어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려 했다.
- ④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려 했다.
- ⑤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지닌 효용성을 강조하려 했다.

13. <보기>는 어떤 자석에 대한 설명이다.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가장 적절한 설명은? [1점]

< 보 기 >

강철이나 순철로 된 철심(鐵心)을 코일로 둘둘 감고,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극과 S극을 갖춘 자석이 만들어진다. 이 철심의 양 끝이 가까워지도록 말굽 모양으로 구부리면 양 극 사이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석은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들어서 옮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① 자기장에서 전류가 만들어짐을 확인한 패러데이의 실험 결과를 응용한 것이다.
- ② 철심에 코일을 감은 것으로 보아, ‘솔레노이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 ③ 철심을 구부린 것은 양 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④ 철심에 생기는 진동을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 ⑤ 코일 주변에 생긴 자기장이 철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태양 이외에도,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체라면 다른 물체를 데울 수 있겠군.
- ② 어떤 물체의 한 쪽을 데우면 다른 쪽도 뜨거워지는 것도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전달로 이해하면 되겠어.
- ③ 열의 정체를 모르던 시절에도 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군.
- ④ 소리도 빛처럼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매질이 없어도 먼 거리에까지 전파될 수 있을 거야.
- ⑤ 물체 내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열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어.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장르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익명의 인물들과 소소한 사건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런데 장르화는 대체 어떻게 해서 장르화로 불리게 된 것일까? 17세기에 들어와 서양에서는 회화의 주제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때 역사화와 역사화 이외의 장르를 엄밀하게 구분하였는데, 역사화 이외의 장르에 해당하는 그림 전반을 가리켜 ㉠ 장르화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더욱 확실하게 구별하는 관행이 정착됐고, 끝내 아무런 이름을 얻지 못한 나머지 그림들은 계속 ㉡ 장르화로 남게 됐다.

장르화는 일상생활과 풍속을 묘사한 그림으로, 당대의 역사, 문화, 생활, 미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풍속화와 유사하다. 또한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소재를 포착하여 솔직하고 재치 있게 표현한 장르화는 해학과 풍자, 익살로 충만하다는 점에서도 우리 풍속화와 유사하다. 장르화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 웃음을 자아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비정상적인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해학, 풍자, 익살을 느낄 수 있다.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고 소박해 보이기도 하는 장르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게 된 것은, ㉢ 삶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능력 때문이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고상하지 않아도 진실하다. 그만큼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준다. 물론 그 감동의 밑바닥에서 따로 삶의 하잘것없음과 비참함을 토로하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현실의 비극에 대해 새삼 깊이 사유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비극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인간적인 풍미와 웃음으로 감싸안은 해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르화에서의 해학은 사실 일정한 도덕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장르화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소품에 유의하면 그 안에 담긴 도덕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 부르주아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장르화는 시민들의 근면한 생활이나 노동 윤리 등 합리적인 생활 태도를 강조하고 허례허식과 부도덕한 삶을 비판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시민적 윤리의 확산을 도왔다.

장르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종교나 신화, 역사 같은 것만을 가치 있다고 여겼다. 세속적인 일상생활이란 아무런 위대성과 숭고미를 머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르화를 그렸던 화가들은 가치 있는 것이 일상 저 너머가 아니라 일상 속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삶의 의미를 삶 그 자체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서양미술사에서 장르화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대상의 의미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미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③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 ④ 용어의 유래를 밝혀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대상과 비교하여 대상의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16.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굴’은 원래 ‘몸 전체의 모습이나 형체’를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 ② ‘영감’은 원래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게 되었다.
- ③ ‘인정’은 예전에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 ④ ‘왕’은 원래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일정한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⑤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가죽이나 비닐, 형광 따위로 만든 것들도 의미하게 되었다.

17. 다음 중, ㉢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 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근 뽕가의 슬가지 노니노라. / 그나은 여나은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 ② 맘은 듯는 대로 두토 벗슨 쥘 대로 쥘다. / 청풍의 웃기 열고 긴 파랑 흘리 볼 제, /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드시 머무는고.
- ③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 찬 기운 새여 드러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한다. /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불 뜻이야 아슬소나.
- ④ 청산(靑山)은 엇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 유수(流水)는 엇데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하는고. /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⑤ 개를 여러몬이나 기르되 요 개각치 알미오라. / 위온 님 오며는 꼬리를 뽕뽕 치며 뽕락 나리 뽕락 반겨서 내닷고, 고온 님 오며는 뽕발을 버둥버둥 머르락 나으락 캉캉 즈저서 도라가게 한다. /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1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번잡해 보이는 실내에서 값비싼 외투를 입은 한 여인이 앉아서 즐기고 있는 사이,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된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장에서 깨어날 줄 모른다. 뒤쪽의 아이는 공방대를 물고 어른 흉내를 내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듯한 남자는 화면 중앙에서 하녀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그림의 주제와 관련하여 화가는 “풍족할 때 조심하라. 그리고 회초리를 두려워하라.”라는 당시 네덜란드의 속담을 그림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놓인 석판에 써 놓았다.

- ①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장르화로 분류할 수 있을 거야.
- ② 화면 속 인물들의 비정상적인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에서 해학과 풍자, 익살을 느낄 수 있어.
- ③ 석판의 문구와 그림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 ④ 천장에 매달린 바구니의 칼과 목발은 ‘징벌’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석판 문구의 ‘회초리’와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어.
- ⑤ 안정감을 주는 구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큰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거야.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가) 레이저(LASER)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방사선 복사를 유도하여 빛을 증폭한다'는 뜻이다. 레이저는 원래 빛이 증폭되는 물리적 현상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레이저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레이저의 개념은 1951년 찰스 타운스가 아인슈타인의 방사파 생성 이론을 기초로 창안하였으며, 1960년 테오도르 메이먼은 최초로 레이저 장치를 구현했다.

(나) 물질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준위는 에너지의 계단이나 사다리에 비유될 수 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전자가 ㉠ 보유하는 에너지도 높아지며, 보유 에너지가 낮은 전자부터 원자핵에 가까운 에너지 준위를 채워나간다.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 흡수하면 자신의 자리를 ㉢ 이탈하여 바깥쪽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전자가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을 때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의 전자들은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는 빛 등의 에너지를 ㉣ 방출하게 된다.

(다) 최초의 레이저 장치를 만든 메이먼은 루비의 전자를 이용하였다. 루비는 그 특성상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될 때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었다. 메이먼은 빛을 쬔 루비의 특정 전자들을 들뜨게 함으로써 바닥 상태의 전자수보다도 들뜬 상태의 전자수를 많게 만들었다. 이런 상태를 ㉤ 조성해 주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들뜬 전자가 자연스럽게 원래의 준위로 되돌아가면서 빛을 내고, 다른 들뜬 전자에서도 같은 파장을 가진 빛이 차례차례 발생한다. 그러는 동안 들뜬 물질의 양쪽에 설치해 둔 거울 2개 사이에서는 생성된 빛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몇 번씩 왕복하며 다른 들뜬 전자들이 빛을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빛은 자꾸만 증폭(增幅)된다. 이 때 2개의 거울 중 1개의 거울은 일부의 빛을 투과할 수 있게 하여 거울 사이에서 증폭된 빛의 일부가 외부에 레이저광선으로 발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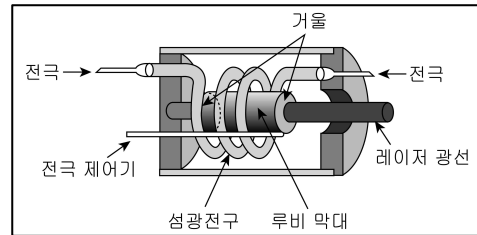
(라) 메이먼의 루비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기체, 액체, 고체, 반도체 등의 매질로 많은 종류의 레이저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특성은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레이저광선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파장과 방향성을 가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완벽하게 직진하므로 다른 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 또한 렌즈를 통해 극히 작은 점에 빛을 수렴시킬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쉽게 퍼지며, 렌즈를 통해서 쉽게 수렴이 되지 않는 보통의 빛과 크게 다른 점이다.

(마)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레이저광선은 보통의 빛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 내고 있다. 공중에 원하는 글자나 멋진 그림을 펼쳐 보이고, CD의 음악을 재생한다. 제조업에서는 레이저광선으로 다양한 물체를 정밀하게 자르거나 태우고, 의사는 환자의 수술에 레이저광선을 활용한다. 단위 시간에 엄청난 양의 통신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통신 매체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레이저는 현대의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첨단 기술로 자리 잡았다.

19.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레이저의 개념
- ② (나) - 레이저광선의 구조
- ③ (다) - 레이저광선의 발생 과정
- ④ (라) - 레이저광선의 특성
- ⑤ (마) - 레이저광선의 응용

20. 다음은 최초의 레이저 장치 모형이다. 위 글을 통해 볼 때, '섬광전구'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전자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 ② 전자를 원자핵에 가깝게 이동시킨다.
- ③ 전자가 들뜬 상태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다.
- ④ 전자가 원래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한다.
- ⑤ 전자 하나당 발생되는 빛의 양과 강도를 증폭시켜 준다.

21. ㉠~㉥을 문맥에 맞게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보유하는 → 이끌어내는
- ② ㉡ : 흡수하면 → 받아들이면
- ③ ㉢ : 이탈하여 → 벗어나
- ④ ㉣ : 방출하게 → 내보내게
- ⑤ ㉤ : 조성해 → 만들어

22.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레이저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이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
- ② 기술자가 과학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지. 물리 현상을 몰랐더라도 레이저는 발명될 수 있었을 거야.
- ③ 기술은 자연에 인공을 가미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어. 레이저도 물리적인 빛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것이니까.
- ④ 레이저에서 빛이 증폭되는 과정은 한두 사람의 열렬한 응원이 모든 관중의 열렬한 응원으로 확산되는 것과 흡사해.
- ⑤ 기술은 여러 사람의 직·간접적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것 같아. 타운스가 개념을 제안하고 메이먼이 이를 구체화했잖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우리나라 금속 공예 역사의 시작은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기원전 약 10세기 즈음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철기 시대를 거쳐 삼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술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금으로 된 신라의 장신구들은 문양이 정밀하게 새겨져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口일본서기口에는 신라를 ‘눈부신 황금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에 딱 맞는 유물이 바로 금으로 만든 허리띠이다. 이 허리띠는 금판보다도 두세 배나 많은 금을 ㉠ 들여 만들었는데, 풀잎무늬를 새겨 넣고 그 아래로 여러 줄의 드리개*를 길게 늘어뜨렸다. 드리개 끝에는 악룡이나 물고기, 숫돌, 족집게, 굵은옥, 손칼, 살포** 등의 도안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래 허리띠에 물건을 주렁주렁 매달고 생활하는 방식은 북방 유목 민족의 풍습이었다. 그들은 손칼이나 악룡 등 평소 즐겨 사용하던 물건을 매달고 다녔는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 후 원래 가지고 있던 실용성은 사라지고 비상용품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식품들이 부착된다. 이 장식품들 가운데 악룡은 질병의 치료, 굵은옥은 생명의 존귀함을, 물고기는 식량을, 살포는 농사를 나타내며, 숫돌과 족집게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를 나타낸다. 허리띠의 주인공들이 당시의 왕이나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장식품들에는 그들이 관장했던 많은 일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장식품들이 부착된 허리띠는 평소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약하다. 이들 허리띠를 의식용이나 장례용품으로 간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금으로 만든 허리띠의 경우 신라 고분에서 발견될 때는 왕이나 왕비의 허리춤에서 마치 황금빛 스커트를 입은 것처럼 화려하게 착장된 채 출토된다. 이 금제 허리띠는 얇게 금판을 오리고, 좌우 대칭으로 문양을 꾸미거나 풀잎 무늬를 뚫어 장식하여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 이는 현세의 삶이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후의 안식처인 무덤 속으로 자신의 권세와 부를 그대로 가져가려 한 신라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口삼국사기口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재질의 허리띠를 착용했다고 한다. 주로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었는데, 고분에서 출토될 때에는 천과 가죽 부분은 모두 썩어 없어지고, 표면에 부착하였던 금속품인 허리띠 장식들만 출토된다. 허리띠 장식을 금속으로 꾸며 사용한 시기는 내물왕 때부터인데, 북쪽의 고구려나 선비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시작한 고구려나 선비족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차츰 신라화 되어 매우 화려해진다. 5세기에는 주로 인동초를 간략화한 풀잎 무늬를 표현하였고, 이 장식은 약 100여 년간 널리 유행하다가 6세기 초 신라의 사회 변화와 함께 점차 소멸되어 간다. 율령 반포를 계기로, 국가 제도와 관리들의 의복 제도가 정비되면서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이 대거 생략되고, 실용적이면서 간소한 구조의 허리띠 장식만 남게 된다. 그 후, 허리띠 장식은 왕족의 전유물로만 쓰이지 않고, 관리들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금제 허리띠 하나에서도 신라인들의 화려한 문화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 금제 허리띠는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다른 황금 유물들과 함께 신라의 찬란한 문화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 드리개 : 매달아서 길게 늘어는 물건.

** 살포 : 눈에 물꼬를 뜨거나 막을 때 쓰는 삼 모양의 농기구.

1.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상호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통시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⑤ 대상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대상이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5세기 후반 금제 허리띠의 띠고리 및 띠꾸미개
(나)		6세기 초반 은제 허리띠의 띠고리 및 띠꾸미개
(다)		7세기 초반 동제 허리띠의 띠고리 및 띠꾸미개

- ① (가)와 (나)의 무늬가 다른 것으로 보아 화려했던 허리띠 장식의 문양이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와 (다)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것에서 의식용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겠군.
- ③ (가)와 (다)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보아 허리띠 구조가 복잡한 것에서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나)와 (다)는 띠고리와 띠꾸미개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허리띠 주요 재질인 가죽이나 천이 썩어 없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 ⑤ (가)에서 (다)로 재질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허리띠 장식의 사용자층이 관리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누님은 손톱에 봉숭아 물을 곱게 들었다.
- ② 나는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로 들여 놓았다.
- ③ 고모님께서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하셨다.
- ④ 집 안에 벌을 잘 들이기 위해 정원의 나무들을 잘라 냈다.
- ⑤ 선배들은 신입생을 자기 동아리에 들여고 홍보를 하고 다녔다.

4. ㉡에 드러난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권세와 부에 초연한 신라인들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보여 주려고
- ② 금제 허리띠를 만든 신라인들의 자부심이 비교적 컸음을 보여 주려고
- ③ 신라인들의 금제 허리띠가 문화 예술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 ④ 허리띠 장식의 화려한 풀잎 무늬를 통해 신라인들의 자연 친화 사상을 보여 주려고
- ⑤ 신라인들의 디자인 장식은 고구려나 선비족의 수준을 모방하는 정도였음을 보여 주려고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농업 사회는 촌락 공동체의 특징적 요소인 지역성, 사회적 상호 작용, 공동의 결속감 등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재생산되기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전제 조건이었다.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고루 갖추고 있는 집단에만 적용할 수 있는 명칭이었으나 현대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회고와 열망은 본래적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운동을 시도해 왔다.

도시 공동체는 도시를 기본 단위로 도시의 주거·직장·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자원, 제도가 사람이 사는 터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로서 자연 발생적 공동체가 아닌 ‘의도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도적 공동체’ 가운데 ㉠ 코뮌(commune)은 구성원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일정한 테두리 속에서 일상적 상호 작용을 하며, 정서적으로도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 코뮌은 생산물과 재산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것을 공동 분배·관리하는 공산제적 성격의 집단을 그 전형(典型)으로 하며, 코뮌의 참여자들은 애초부터 어떤 이념 가치 아래 자발적으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다. 코뮌에서는 모든 경제 행위와 인간 관계, 문화 활동 등 생활의 전 영역을 공동으로 해결하므로 주거 공간과 노동 조건 같은 삶의 자족적 시스템이 창출(創出)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코뮌 같은 공동 생활의 자족적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한 상호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동의 이해 관계를 발견하기가 비교적 쉬운 기존의 물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 공동체적 요소가 강한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화된 세력을 구성하려는 시도(試圖)를 한다. 또한 생활의 영역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사 한 두 가지의 공동 이해(利害)를 기반으로 단일한 목적이나 이념을 갖는 사람들로 목적 지향적 집단인 ‘협동 조합’을 구성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도시에서 시도되는 공동체의 성격을 보면 공동체적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組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테면 아파트와 같은 ㉢ 정주(定住) 공동체는 구성을 시도하는 시점부터 거주 시설의 집단화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지역성 즉, 공간 근접성은 높지만 구성원들의 목적 의식이나 가치관의 동질성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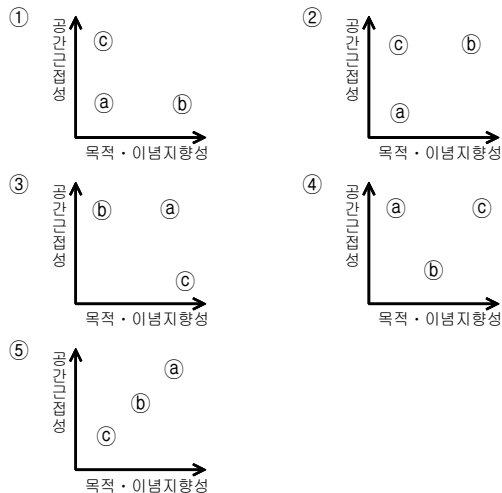
협동 조합은 일단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유한 이념을 확산하고 심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이념으로 뭉친 결사체보다는 덜 하지만 뚜렷한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성은 참여자들의 삶의 ㉣ 터전이 밀접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뮌의 경우는 생활의 대부분을 긴밀하게 공유하므로 지역성과 이념성이 모두 높은 반면, ㉤ 이념적 결사체는 공간 근접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동체 운동은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적 동질화를 꾀하는 한편, 참여자들의 관심과 사고 범위가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이웃, 지역 사회, 시민 사회 전반의 유익함을 고려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개인의 의식의 발전,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공동체 운동은 매우 더디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를 기약한다고 할 수 있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코뮌’은 삶의 자족적 시스템을 갖춘 의도적 공동체이다.
- ② 공동체 운동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 ③ ‘협동조합’은 단일한 이념과 목적을 토대로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중시한다.
- ④ 농업 사회는 공동체의 요소가 구현되기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졌다.
- ⑤ ‘도시 공동체’는 실제로 공동체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유형화하기가 어렵다.

6.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7. ㉡의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이 언론사에서 주최한 봄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원에 모였다.
- ②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 동창회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다.
- ③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치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 ④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서 시민 단체에 모였다.
- ⑤ 아파트 주민들이 욕아 문제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 자녀 바로 기르기 모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8.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터전01
☐ 집터가 되는 땅. ㉠ 집집마다 터전이 넓었다. ㉠
☐ 자리를 잡은 곳. ㉡ 경주는 신라의 옛 터전이었다. ㉡
☐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다. · ㉢
☐ 일의 토대. ㉣ 민주주의 터전을 다지다. ㉣

터-전02
☐ 텃밭. ㉤ 뒤 곁에 터전을 일구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4월

중국에서는 2,500년 전에 뽕루지나 종기의 치료제로 공팡이가 핀 두부를 이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요법으로 상처에 된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된장에 들어 있던 항생 물질의 효력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다. 서양에서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이전에 ‘한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는 ‘항생’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응용은 부족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수백 종에 이르는 항미생물제제 중에는 실제로 자연계에 살고 있는 세균, 공팡이 등과 같은 미생물에서 분리된 것과 이와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도 있다. 이 중에서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나 에탐부톨(ethambutol)과 같은 약은 합성된 것으로, 살아 있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항생제로 보지 않는다.

인간이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세균에 작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세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이라고 불리는 층이 있고, 그것을 생합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포벽 바깥에 있는 당단백질을 트랜스펩티데이즈(transpeptidase)라는 효소가 연결해 주는데, 이 효소의 작용을 페니실린이 억제하여 인체에 감염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음으로써 세균이 멸종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균의 용해에는 자가분해효소라는 세균의 효소가 관여하는데,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자가분해효소 저해제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그 세포가 신속하게 부서지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은 페니실린이 작용하여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어도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돌연변이 세균이 분리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페니실린에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하여 페니실린 분해 효소로 페니실린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 세균을 페니실린에 대하여 내성(耐性)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에는 전혀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면 해결된다.

우리가 몸에 항생제를 직접 투여하게 되는 경우는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경우이다. 감기 초기에는 감기에 걸리게 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냥 두고 두통, 콧물, 고열 등과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진통제, 비충혈제거제, 해열제 등을 쓰게 된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러 목 주변에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의사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곤 한다.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항생제의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항생제의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항생제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수많은 연구자와 제약 회사들은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찾기 위하여 지구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제까지 확보해 온 우세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세균이 죽느냐, 인간이 죽느냐, 조물주조차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만든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질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에서 푸른 공팡이가 생산한 페니실린 미사일을 병균의 퇴치에 사용하는 지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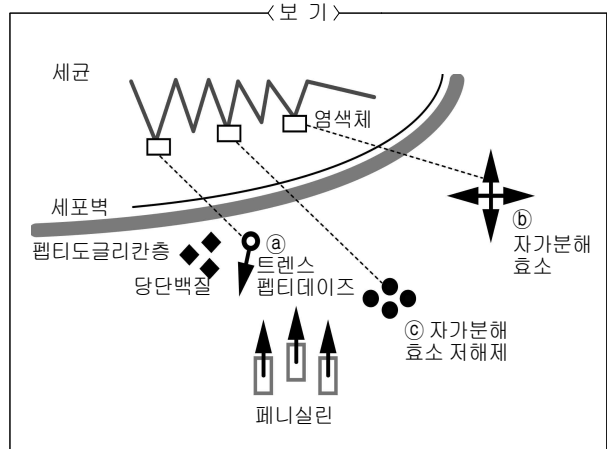
- ① 인간은 오래 전부터 항생 물질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 ②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항생제는 미생물에서 분리된 것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있다.
- ④ 인간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 ⑤ 살아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은 것은 항생제로 보기 어렵다.

1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수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작용 과정을 규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1. [A]를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세포벽에 있는 펩티도글리칸층과 당단백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페니실린이 ㉠의 작용을 억제하여 인체에 감염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다.
- ③ 페니실린은 내성을 지닌 세균에 대해서는 ㉠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 ④ 페니실린은 돌연변이 세균이 출현하면 ㉢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다.
- ⑤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를 감소시켜 세균이 용해되도록 한다.

12. 위 글을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인 국내 항생제 처방률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의 두 배에 이르고 항생제 내성균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의대 연구팀이 축농증과 폐렴, 중이염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항생제인 페니실린 내성 실험을 한 결과, 외국은 내성률이 0~5.5%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80% 정도에서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 ○○일보 -

- ① 페니실린 사용 방법 외에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겠군.
- ②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해야겠군.
- ③ 페니실린의 효과를 과대평가(過大評價)하면 낭패를 보겠군.
- ④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더니, 페니실린을 적절하게 써야겠군.
- ⑤ 아무리 좋은 항생제라도 병균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긴 어렵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어릴 적 환상의 한 부분을 점차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위그(WIG, Wing-In-Ground) 선’이 그 가운데 하나다. 위그선은 날개로 수면 위에 떠서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배다. 이 배가 처음 개발된 것은 1960년대이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카스피 해에서 시속 550km로 움직이는 괴물체를 발견한 1976년의 일이다. 이 괴물체는 뒤에 소련의 위그선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위그선을 ‘바다 괴물’이라고 불렀다.

위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면 위에 낮게 떠서 비행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날개 끝에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유동적(流動的)인 소용돌이 현상인 와류(渦流)가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날개가 전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결국 선체는 큰 저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면 가까이 날아갈 경우 날개 끝에 생기는 와류가 현격히 줄어든다. 수면과 날개 사이의 간격이 좁아 와류가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그선처럼 수면에서 5m 이내로 조금만 떠올라 날아가는 경우 날개가 받는 양력, 즉 상승력은 공중을 비행하는 경우보다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배는 수면에 닿아 있어 이로 인해 생기는 선체 저항을 피할 수 없지만, 위그선은 이런 선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중 날개로 활주하는 초고속선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처럼 물속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근접할수록 효율이 떨어지지만, 수면 위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향상되는데, 이를 ‘지면 효과(ground effect)’라고 한다. 위그선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 선체를 수면 위에 띄운 뒤 항공기용 프로펠러 엔진으로 전진한다. 위그선이 물 위를 달리는 항주 속도는 시속 100km에서 최고 500km에 달한다. 이런 장점을 때문에 위그선은 일반 항공기나 초고속선에 비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해상에서 바로 활주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안의 작은 섬이나 해안의 작은 도시처럼 공항 시설을 건설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그선이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위그선에 관한 가장 큰 난제는 파랑(波浪) 중 ㉠ 이착수(離着水) 문제다.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효율성이 높은 부양 방식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파랑이 있는 수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착수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체 형상 및 제어 방식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그선은 일반 항공기와는 달리 해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부 선체의 구조 강도가 항공기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돼야 한다. 즉,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 되어야 위그선이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금속 재재를 사용하고 강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신소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위그선은 항공기와 운항 영역 및 고도가 다르므로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항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비들이 운항 특성에 맞게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가(船價)가 적절한 가격대로 형성되어야 실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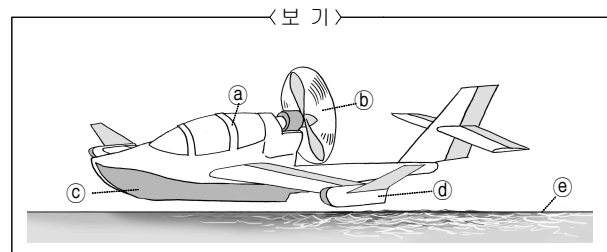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히 활용함은 물론 위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운항 선사와 지방자치 단체, 외국 기관들도 처음부터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하면 최종 실용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위그선과 항공기는 운항 영역 및 고도에 차이가 있다.
- ② 위그선은 날개가 있는 배로 일반적인 배보다 속도가 빠르다.
- ③ 위그선은 초고속선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 ④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 ⑤ 위그선과 초고속선은 수중 날개가 있어 비슷한 속력을 낼 수 있다.

14. 위 글을 바탕으로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항공기의 구조와 비슷하므로 실용화를 위해 항공기에 쓰이는 소재를 써야겠군.
- ② ㉡은 와류를 이용하여 배를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군.
- ③ ㉢은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겠어.
- ④ ㉣가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이 증가되어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겠군.
- ⑤ ㉤에서 파랑이 일어든 위그선의 운항에는 별 지장이 없겠군.

15.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조합 방식이 ㉠과 다른 것은?

<보기>

㉠에 적용된 단어의 조합 기준

- (1) 통합되는 두 단어가 반의 관계에 있음.
- (2)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에서 공통되는 어휘나 요소가 생략됨.

<예> [이수(離水) + 착수(着水) → 이착수(離着水)]

- 이수(離水) : 비행 물체 등이 수면을 떠나 날아오름.
- 착수(着水) : 비행 물체 등이 수면에 내림.

- ① 냉온수(冷溫水) ② 장단점(長短點) ③ 등하교(登下校)
- ④ 원근감(遠近感) ⑤ 출입구(出入口)

16.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이착수가 가능한 위그선
- ② 시속 100km~5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위그선
- ③ 교각 등과 같은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그선
- ④ 수면과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위그선
- ⑤ 하부선체의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가 가능한 위그선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칼 구스타프 융(Jung, Carl Gustav)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정신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했다.

의식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신의 유일한 부분이며, 유아기 때 감정, 사고, 감각, 직관의 의식을 통해 성장해 간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에게는 사고가, 어떤 아이는 감정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의식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요소가 생겨나는데 융은 이것을 ‘자아’라고 불렀다. 자아는 자각하고 있는 지각(知覺), 기억,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며, 자아에 의해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면 그것들은 자각될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이 의식의 수준까지 도달되기 전에 자아가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 수문장(守門將)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아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경험들은 어떻게 될까? 경험할 당시 중요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개인 무의식’이라는 곳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쉽게 의식화될 수 있다.

[A] 한편, 융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다. 융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은 선조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내용물을 담은 용기(容器)라는 것이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 했으며, 이것은 많은 세대를 거쳐 반복된 경험들의 축적된 결과이며, 이는 과거 세대의 경험을 재생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아기가 ‘어머니를 어떻게 지각하느냐’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예비 관점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물을 원형(原型)이라고 한다.

원형들 중 사람들의 인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페르소나(persona) 원형, 아니마 원형과 아니무스 원형, 그림자 원형, 자기 원형이 있다. [페르소나]란 개인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가면 또는 겉모습이며, 여기에는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해로운 페르소나는 한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기 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게 되면, 자아는 그 페르소나만 동일시하여 성격의 다른 면은 전혀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페르소나가 세상을 향한 얼굴, 즉 외면이라면, 내면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을 말하고, ㉢ 아니무스는 그 반대로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말한다. 남자는 여성성을 물려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영향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된다. 아니마의 처음 투사(投射)는 어머니에게 행해지며, 아니무스는 아버지에게 행해진다. 융은 개인이 양성적(兩性的) 본성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면 건강한 성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림자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으로 친구에게서 결점을 지적당하면 분노를 느끼는데, 이는 친구의 지적을 통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즉 특정인을 미워할 경우 이는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자신의 약점이 특정인에게 투사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 자기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의 중심 원형으로 의식 속의 원형들을 조직하고 조화시킨다. 누군가가 자신 및 세계가 조화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원형들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형들 중 사람들의 인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페르소나(persona) 원형, 아니마 원형과 아니무스 원형, 그림자 원형, 자기 원형이 있다. [페르소나]란 개인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가면 또는 겉모습이며, 여기에는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해로운 페르소나는 한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기 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게 되면, 자아는 그 페르소나만 동일시하여 성격의 다른 면은 전혀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페르소나가 세상을 향한 얼굴, 즉 외면이라면, 내면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을 말하고, ㉢ 아니무스는 그 반대로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말한다. 남자는 여성성을 물려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영향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된다. 아니마의 처음 투사(投射)는 어머니에게 행해지며, 아니무스는 아버지에게 행해진다. 융은 개인이 양성적(兩性的) 본성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면 건강한 성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림자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으로 친구에게서 결점을 지적당하면 분노를 느끼는데, 이는 친구의 지적을 통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즉 특정인을 미워할 경우 이는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자신의 약점이 특정인에게 투사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 자기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의 중심 원형으로 의식 속의 원형들을 조직하고 조화시킨다. 누군가가 자신 및 세계가 조화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원형들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정신은 바위나 나무처럼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17.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분석하여 그 발전 과정을 규명한다.
- ② 사례를 열거하여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낸다.
- ③ 주요 개념들을 구분하여 대상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④ 대상과 관련된 이론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 ⑤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8.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생각’은 자아에 의해 존재로 인정받아야 자각된다.
- ② ‘감각’은 다른 의식의 기능보다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개인 무의식’은 상황에 따라서 자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④ ‘자아’가 경험들을 의식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경험만 수용한다.
- ⑤ ‘의식’은 타인과 구별되는 발달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시킨다.

19. [페르소나]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영미는 착한 동생을 항상 귀여워한다.
- ② 영화는 생일 선물을 받고 밝게 웃었다.
- ③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
- ④ 은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했다.
- ⑤ 영철은 반장이 되더니 주위를 의식해 근엄해졌다.

20.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완충기(緩衝器) ② 여과기(濾過器) ③ 계량기(計量器)
- ④ 감지기(感知器) ⑤ 경보기(警報器)

21. ㉠ ~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이성적 감정을 가질 때 작용하는 원형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은 여성이 군인의 길을 선택할 때 여성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원형이군.
- ③ ㉢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싫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원형이겠군.
- ④ ㉤은 핵심 원형이므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원형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이나 ㉡의 원형이 풍부한 사람은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6월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옷 가게의 쇼윈도에는 마네킹이 멋진 목걸이를 한 채 붉은 색 스커트를 날씬한 허리에 감고 있다. 환한 조명 때문에 마네킹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길을 걷다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마네킹을 하나씩 살펴본다. 마네킹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네. 저 비싸 보이는 목걸이는 어디서 샀을까. 짧은 스커트가 눈부시네……. 나도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곧 옷 가게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텍스트는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존재한다. 표층 층위는 쇼윈도의 장식, 조명, 마네킹의 모습 등과 같은 감각적인 층위이다. 심층 층위는 쇼윈도의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층위이다. 서사 층위는 표층 층위와 심층 층위를 연결하는 층위로서 ㉢ 이야기 형태로 존재한다.

서사 층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작용을 한다. 생산자는 텍스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해독한다. 이런 소비의 의사소통 과정은 소비자의 ‘서사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서사 행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는 쇼윈도 앞에 멈추어 공간 텍스트를 읽을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와 쇼윈도의 구성물들을 감상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들을 읽어 내게 된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이 네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사 행로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자기가 그 상품을 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쇼윈도는 소비자를 소비 공간으로 유인한다.
- ② 소비자는 서사 행로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책을 읽는 능력은 공간 텍스트 해독에 도움을 준다.
- ④ 마네킹을 통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한다.
-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부여한 의미가 담기게 된다.

2. 위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②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③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힌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 ⑤ 특정한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한다.

3.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②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다.
- ④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
- ⑤ 공연 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 ㉢의 뜻을풀이를 <보기>에서 찾으려면? [1점]

—<보 기>—

이야기 □ ㉠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 ㉢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 소문이나 평판.

- |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동방적(oriental) 주제에 대한 동경과 동방의 미술 전통 속에서 확인한 장식적·평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교차하면서 탄생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그림은 1911년과 1912년에 이루어진 모로코 여행의 추억에서 구상되었다. 여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그려진 작품과는 달리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 모로코의 추억은 마티스의 머릿속에서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거의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온갖 논의가 벌어졌다.



화면의 왼편 위쪽에 그려진 회색의 형태가 테라스에서 본 이슬람 사원이고, 테라스의 난간 한쪽 끄트머리에 있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네 개의 원이 남국의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데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아래 ㉠ 흰 선의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미술 사학자는 이것을 모로코 사람들이 타일을 깔 바닥 위에 이마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 황색의 원은 터번을 두른 아랍인의 머리가 되고, 녹색의 형태는 아랍 특유의 민소매 긴 옷이 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는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들’을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모티프가 멜론인지 모로코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애초에 마티스의 마음속에는 아마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이지만, 완성된 작품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승화되었다. ㉢ 황색의 원형은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인물의 머리와 호응하고, 나아가 뒤편의 파란 꽃과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과 어우러지면서 화면에 부드러운 리듬을 자아내고 있다. 이 원은 멜론이나 아랍 사람의 머리이기에 앞서 화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 화면 오른편 아래쪽의 장방형에는 청색이, 바탕에는 옅은 보라색이 각각 칠해져 있다. 한편 화면 왼편에는 화분에 핀 꽃의 청색과 건물의 회색, 그리고 전체의 바탕에 깔린 검정색이 등장한다. 색 그 자체는 화려하다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분명히 남국의 창을 생각나게 하는 밝음이 느껴진다.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에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검정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국의 투명한 밝음을 느끼게 해 준다. 마티스 자신도 이 검정을 가리켜 ‘빛의 색’이라고 했는데,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킨 것에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 있다. ㉥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그런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5. ‘모로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마티스는 이 그림에서 야수파 시기의 격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다.
- ② 모로코 여행 직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모로코의 풍광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 ③ 마티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특정 모티프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④ 이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해석이 이 그림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다.

6. <보기>에 제시된 미술 비평 단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의 성격을 판단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일반적으로 미술 비평은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소재)들의 목록이 작성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석의 단계는 전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파악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단계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7. ㉣가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1점]

- 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 ② 검정색만으로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 ③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 ④ 검정색이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밝은 느낌을 주었다.
- 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빛의 색’이 되었다.

8. 마티스의 문하생이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그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슬람 사원과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렸다.
- ② 보기 좋게 배치된 멜론을 분명한 윤곽선과 멜론 고유의 노란색을 이용해 그렸다.
- ③ 연속된 동심원의 형태와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벌의 느낌을 율동감 있게 그렸다.
- ④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그를 감동시킨 음악가의 초상화를 그리되, 악보를 그려 나가는 그의 손을 강조해 그렸다.
- ⑤ 인류에게 조화로운 삶을 강조했던 성인(聖人)의 일화를 안정된 삼각형 구도 속에서 차분한 색채와 웅장한 형태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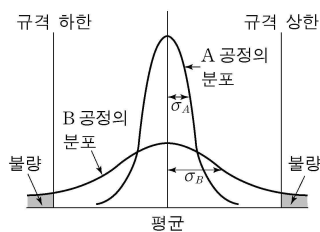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6월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①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한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②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 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 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 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 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 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 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③ 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 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④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10. ①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②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③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④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⑤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11.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 ㉡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1점]

<보 기>

- 가. 정의 단계: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나. 측정 단계: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다. 분석 단계: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라. 개선 단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마. 통제 단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

- 나
- 라
- 다
- 마
- 가

1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270만 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5개월 100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63,00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2.5일 100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57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0분 100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2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6초 100년	네 걸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정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정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㉔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㉕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정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정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정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㉖ 온건한 공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주의의 종류 ② 공정주의의 적용 방식
③ 도덕적 정당성의 의미 ④ 공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⑤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

14. ㉕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 ①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③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⑤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1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㉗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16.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정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정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④ 강경한 공정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⑤ 온건한 공정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17.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별한 ② 고유한 ③ 독특한
④ 상이한 ⑤ 특이한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원래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 세어졌다 ㉣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text{Hz} \times 55$,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

게 해서 만들어진 ㉤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으로 한 동안 널리 쓰였다.

18. 샤이블러의 업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1점]

- ① 맥놀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② 악기의 기준음의 정확한 진동수를 구하였다.
③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④ 악기의 조율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굽쇠를 발명했다.
⑤ 소리굽쇠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했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Hz일 것이다.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 ㉤이 도입된 곳에서 일어났을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보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다.
② 음악 애호가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③ 낮은 음을 쓰는 곡이 많아졌을 것이다.
④ 맥놀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⑤ 음악가들이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했을 것이다.

21. ㉠, ㉢, ㉤의 의미 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런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보 기>

단단하다 ← 반의 관계 → 약하다 ← 반의 관계 → 세다

- ① 어리다 ↔ 젊다 ↔ 늙다
② 나쁘다 ↔ 좋다 ↔ 싫다
③ 받다 ↔ 주다 ↔ 빼앗다
④ 밟다 ↔ 굽다 ↔ 거칠다
⑤ 밀다 ↔ 당기다 ↔ 늦추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 km, 남북으로 약 350 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 cm 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잴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1. 위 글로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판이 확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ㄴ. 판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ㄷ.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ㄹ. 판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②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③ 아이슬란드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④ 확장되지 않는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질 현상이 일어날까?
 ⑤ 과학자들은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귀성 차표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
 ② 농사철에는 일꾼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③ 그는 한 시간 내에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④ 철수는 영수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답을 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가) 사진술은 다양한 물질의 감광성에 대한 길고도 지루한 실험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다. 상(像)을 정착시키는 기술의 선구자인 니에프스와의 공동 연구 이후 다게르는 1837년에 동판 위에 감광성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정착시키고 암상자 속에서 빛에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씌어 세부 묘사가 대단히 정밀한 상을 얻어 내었다. 한편 영국인 톨버트는 1835년에 최초의 ‘감광 소묘’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영화으로 감광성을 띠게 한 종이 위에 물건이나 식물을 놓고 산출한 음화(陰畵)였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암상자를 이용하여 사물의 영상을 종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종이 면에 정착된 톨버트의 영상은 매끈한 다게르 동판의 선명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나) 1839년에 두 기술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게르는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기술을 프랑스 정부에 인도하는 대가로 거액의 종신 연금을 약속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게레오타입의 제작 비결을 공개했고 이로써 저작권이 없어진 이 기법은, 다게르가 특허를 낸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나 아무 제한 없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게레오타입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다) 한편 톨버트의 기법은 휴대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톨버트는 계속된 연구를 통해 1840년에 암상자에서 얻은 음화를 현상하여 여러 장의 양화(陽畵)를 인화하는 음화-양화 기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다게레오타입은 한 번의 촬영으로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톨버트의 새 기술은 여러 장의 똑같은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진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톨버트는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칼로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톨버트가 칼로타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술에 대해 많은 사용료를 ㉠ 요구하는 바람에 이 기술의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다.

(라) 사진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 준 분야는 초상 사진이었다. 정밀한 세부 묘사를 장점으로 하는 다게레오타입은 초상 사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여러 곳에 사진관이 들어서서 영구적인 초상을 금속판에 남기는 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었던 칼로타입은 초상 사진보다는 풍경, 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허에 묶여 있었던 칼로타입이 그나마 퍼질 수 있었던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화가와 판화가들은 칼로타입이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판화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마) 사람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으로 톨버트는 1852년에 초상 사진 영역을 제외하고 칼로타입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이 기법을 유행시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 1850년대 초에 콜로디온을 유리에 발라 선명한 음화를 얻고 그것에서 원하는 대로 양화를 얻을 수 있는 콜로디온 기법이 특허권 없이 공개되면서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은

모두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5. 위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초기 사진술의 원리
- ② 초기 사진술의 장점과 단점
- ③ 초기 사진술의 보급과 쇠퇴
- ④ 발명과 창의적 발상의 관계
- ⑤ 특허가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6. 위 글에 따라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을 비교하여 만든 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① 용도	인물 사진	풍경, 정물 사진
② 사진판의 재질	동판	종이
③ 주요 보급 지역	프랑스, 미국	프랑스
④ 영상의 특징	정밀한 세부 묘사	다양한 중간색
⑤ 복제 가능성	복제 불가능	다량 복제 가능

7. (가)~(마)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다게르와 톨버트는 다른 감광 물질을 사용했었군.
- ② (나): 프랑스 정부는 기술의 공공화에 기여했군.
- ③ (다):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 ④ (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초상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았겠어.
- ⑤ (마): 콜로디온 기법은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장점을 모두 가졌겠군.

8. ㉠의 ‘-는 바람에’와 의미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함께 늘어 가는 마당에 가릴 것이 뭐가 있소?
- ②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선 공부를 못 하겠다.
- ③ 이 일이 들통 나는 날에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④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으니 참는 김에 더 참아 봅시다.
- ⑤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가)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물론 정보 격차에 관한 비판적 관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매체 접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보 격차는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접근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감소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증가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서 또 다른 정보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크게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열등감도 문제이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 문제 해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용의 자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

(라) 사용 여건의 공평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이용 기회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매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더라도 주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정보 격차는 지속된다.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 활용법을 열심히 습득하였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방법을 알고 활용을 원할지라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 격차는 발생한다.

(마)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정보 격차의 새로운 측면들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된다. 이것은 보다 세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보 격차의 존재와 유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논의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논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새로운 관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④ (라): 새로운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⑤ (마): 논의 대상의 향후 전개 양상을 전망하고 있다.

10. 위 글로 보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단위의 인터넷 동호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②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
- ③ 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따로 묶어 노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든다.
- ④ 디지털 매체의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⑤ 정보화 낙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1. 문맥을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 ② ㉡: 컴퓨터 사용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 ③ ㉢: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
- ④ ㉣: 컴퓨터 자격증이 여럿 있지만 직장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 ⑤ ㉤: 인터넷 검색법을 배우고 나서 유용한 자료를 더 빨리 수집하게 되었다.

12. ㉠의 관점을 수용해서 ‘공연 문화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공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 ② 공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연 문화 학교를 운영하자.
- ③ 우수 공연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④ 다양한 관객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연 작품을 기획하자.
- ⑤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가 저렴한 공연장을 많이 만들자.

13. ㉠은 <보기 1>에서 보듯이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과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이 다르다. <보기 2>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보기 1>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떨어지다	올라가다	(설득력이) 떨어지다 ↔ (설득력이) [높다]

<보기 2>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ㄱ. 풀다	묶다	(감정을) 풀다 ↔ (감정을) []
ㄴ. 주다	받다	(검을) 주다 ↔ (검을) []
ㄷ. 열다	닫다	(입을) 열다 ↔ (입을) []
ㄹ. 빨다	삼키다	(말을) 빨다 ↔ (말을)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결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츠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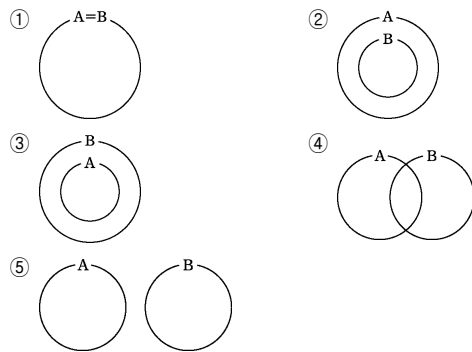
- ①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 ②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5. 위 글을 읽고 와이츠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3점]

- ① 와이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 ② 와이츠는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
- ③ 와이츠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아. 열린 개념이라고 해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야.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와이츠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미래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츠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16.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17.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 중,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 이 되었다.

18.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1점]

- ① 의병의 참여 동기 ②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③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④ 의병의 전투 활동 실태
⑤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

19.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훌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0. [A]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가 있나.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21. ㉢의 접미사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1점]

- ① 사냥-꾼 ② 동갑-내기 ③ 대장-장이
④ 벼슬-아치 ⑤ 잠-꾸러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20세기 예술가들은 재료의 가치와 풍요로움을 발견했다. 물론 ㉠ 이전의 예술가들이 재료로부터 창조적 구성이 나오고, 재료가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재료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재료 그 자체는 아직 미적 질서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이며, 미(美)란 재료 위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예술가들은 이런 확신에 반발하면서 재료를 재평가했다. 그들은 기존의 조형 예술의 틀을 포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신선함을 지닌 재료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의 밑바탕으로만 여겨졌던 재료는 그 자체가 예술의 목적이자 예술적 창조의 대상이 되었다.

‘앵포르멜(informel)’이라고 불리는 회화에서 우리는 얼룩, 균열, 덩어리, 박편, 물방울 같은 재료들의 승리를 볼 수 있다. 앵포르멜 화가들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의 동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재료 그 자체, 즉 캔버스 위에 흩뿌린 물감이나 찢어진 자루, 균열이 생긴 금속에 모든 일을 맡긴다. 그들은 그림이나 조각을 ㉡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는 우연의 산물로 만들기 위해 일체의 형식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술가는 그저 원재료를 상기시키는 제목을 자신의 작품에 붙일 따름이다. 몇몇 앵포르멜 화가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갈, 얼룩, 공팡이, 녹 등의 재료를 선택하고 강조했으며,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표현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재료의 비정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각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미 20세기 초에 뒤상 같은 예술가들이 제안했던 레디메이드 미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술가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이,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라도 되는 양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자전기 바퀴, 열에 의해 변형된 컵, 마네킹, 그리고 심지어 번기까지 조각 작품으로 선택했다. 일상의 사물들이 별다른 변형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예술가에 의해 선택되고 제목이 붙여져서 작품이 되는 순간, 이 사물들은 마치 작가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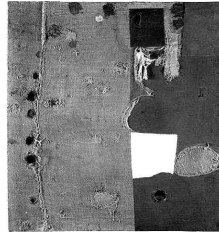
이미 소비 주기가 끝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상품이나 산업 폐기물이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재료들을 통해 예술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화된 세계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에게 산업화된 세계의 사물들 역시 미적 감동을 전해 줄 수 있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소비 주기가 끝나 쓸모 없는 물건이 되어 버려진 이 재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쓸모없음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다. ㉢ 낡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를 압착하고 변형시켜 일그러진 금속의 형태를 제시한 세자르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1.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재료의 가치를 재평가한 20세기 예술
- 재료 그 자체를 통해 미를 표현하고자 한 시도들
- ② 재료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
- 창조적 정신의 표현에 의해 성취되는 작품의 미
- ③ 예술가들이 재료를 다루는 방식
- 앵포르멜 화가들이 사용한 재료와 기법을 중심으로
- ④ 현대 예술의 다양한 재료들
-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재료에서부터 재생산된 재료까지
- ⑤ 쓸모없는 물건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들
-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2.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알베르토 부리, <자루>

이 작품은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낡고 거친 삼베 조각, 종이 슬릿거나 찢어진 천, 다락방에 버려진 자루 조각 등의 재료를 되대로 오려 붙이고는 그것에 ‘자루’라는 제목을 붙였다.

- ① 작가는 재료를 통해 자신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하려 한 것은 아닐까?
- ② 작가가 ‘자루’라고 제목을 붙인 데에는 원재료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 ③ 이 작품은 구멍이 뚫려 있고 낡아서 해어진 부분이 있는 천들의 우연한 결합을 그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 ④ 찢어진 천, 버려진 자루 조각 등을 선택하여 재료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앵포르멜’로 평가하는 것 같아.
- ⑤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은 자루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 같아.

3. ㉠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예술가가 할 일은 여분의 것을 깎아내, 그 대리석이 함유하고 있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 놓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 ② 조지프 애디슨은, 미는 선명하거나 다양한 색상, 각 부분의 조화와 비례, 사물들의 질서와 배치, 혹은 이 모든 요소들이 적절히 혼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 ③ 루소는, 탁월한 시각은 섬세하고 세련된 감정과 같은 것이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화가는 일반 관람객들이 주목하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 ④ 호손은, 젊은 조각가들이 천박한 여성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든 후, ‘이브’나 ‘비너스’와 같이, 몸에 제대로 걸친 것이 없어도 핑계가 될 만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비평했다.
- 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는 인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물들의 주인으로, 단 한 번의 눈길로 사물들이 만들어 내는 균형 잡힌 조화를 포착해 되살려 낸다고 말했다.

4. 문맥을 고려하여 ㉢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개가 제 살을 갈라 품은 진주처럼
- ② 파도가 모래 위에 그려 놓은 흔적처럼
- ③ 바람막에 남겨 놓은 여행자의 자취처럼
- ④ 산새마져 날아간 저녁 무렵의 골짜기처럼
- ⑤ 낡은 일기장에서 찾아낸 어릴 적 사진처럼

5. ㉔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곳에 있는 바퀴들은 이미 속도를 잃었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유롭다.
나를 속박하던 이름도 광택도
이곳에는 없다.
줄리워도 눈 감을 수 없었던 내 눈꺼풀
지금 내 눈꺼풀은
꿈꾸기 위해 있다.
나는 비로소 지상의 화려한 불을 끄고
내 옆의 해바라기를
꿈 같은 지하의 불을 길어 올린다.
비로소 자유로운 내 오장육부
내 육체 위에 풀들이 자란다.
내 육체가 키우는 풀들은
내가 꿈꾸는 공기의 질량만큼 무성하다.
- 박남희, '폐차장 근처' 중에서

- ① 이미 소비 주기가 끝나 버려진 폐기물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
- ② 산업화된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 ③ 작가는 소재 그 자체의 속성과 의미에 주목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 ④ 쓸모없는 것들에서 미적 감동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 ⑤ 작가는 자신과 대비되는 소재를 선택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 (가)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은 병행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 경제학에서는,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합리성'이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가운데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의미의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주장이다.
- (나) 그러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사회적인 합리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격리된 두 용의자가 각각 개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이, 오히려 집합적인 결과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㉑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㉒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대부분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 (다) ㉓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한다. 그들은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협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의외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협동을 하는 모습을 곧잘 보여주곤 한다. 그들은 이런 행동들도 합리성을 들어 설명한다. 만연이 있는 사이에서는 오히려 상대방과 협조를 하는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협동도 크게 보아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다.

- (라)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난개발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기 집 부근에 도로나 공원이 생기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은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 '합리적인 개인'이 '비합리적인 사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마)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는 의사소통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면 죄수의 딜레마 같은 현상에 빠지지 않고도 개인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감을 형성하며, 적절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친다면 개인의 합리성이 보다 쉽게 사회적 합리성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 것이다.

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 기존 견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재반박을 통해 기존 견해를 보장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라) -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두 견해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고 있다.
- ⑤ (마) -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글쓴이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가 기계라면 개인은 그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 거야.
- ② 사회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사람들은 이기심보다 협동심이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
- ④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틀림없어.
- ⑤ 사회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군.

8. ㉔가 <보기>를 바탕으로 ㉒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이 관련되어 있을 때 유독 협동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속한 집단의 협동을 중시하곤 한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는 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 ①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 정신에서 비롯된 순수한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겠는가?
- ② 한 집단 내에서의 협동으로 얻은 결과가, 그 집단이 속한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 ③ 사람들이 집단의 협동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 ④ 협동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라기보다는 일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보이는 현상 아닌가?
- 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집단의 협동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9. ㉠과 같은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점]

- ① 제 눈에 물 대기
-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 ③ 도랑 치고 가재 잡기
- ④ 눈 가리고 아웅 하기
- ⑤ 못 먹는 감 찢러나 보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많은 학자들이 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뇌는 좀처럼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인간의 뇌가 외부에서 받아들인 기억 정보를 어떻게, 어디에 저장하는지 알아낸다면 뇌의 비밀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기억 정보가 뇌에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학설이 나왔지만, 그 중 ㉠ 뉴런(신경세포) 간 연결 구조인 시냅스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학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간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는데 뉴런 1개당 수천 개의 시냅스를 형성한다. 시냅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시냅스 전(前) 뉴런과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냅스 후(後) 뉴런, 그리고 두 뉴런 사이의 좁은 간격, 곧 20~50나노미터 정도 벌어진 시냅스 틈으로 구성된다. 시냅스 전 뉴런에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말단에서 시냅스 틈으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이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신호를 받아들이는 물질-를 자극해 전기를 발생시킨다. 뇌가 작동하는 것은 시냅스로 이뤄진 신경망을 통해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뇌가 받아들인 기억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 저장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크게 서술 정보와 비서술 정보로 나뉜다. 서술 정보란 학교 공부, 영화 줄거리, 장소나 위치, 사람 얼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반면 비서술 정보는 몸으로 습득하는 운동 기술, 습관, 버릇, 반사적 행동 등과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이다. 이 중에서 서술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뇌의 내측두엽에 있는 해마로 알려져 있다. ㉡ 교통사고를 당해 해마 부위가 손상된 이후 서술 기억 능력이 손상된 사람의 예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그는 교통사고 이전의 오래된 기억을 모두 회상해냈다. 해마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는 아닌 것이다.

서술 정보가 오랫동안 저장되는 곳으로 많은 학자들은 대뇌피질을 들고 있다. 내측두엽으로 들어온 서술 정보는 해마와 그 주변 조직들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쪼개져 신경정보 신호로 바뀌고 어떻게 나누어 저장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내측두엽은 대뇌피질의 광범위한 영역과 신경망을 통해 연결되어 이런 기억 정보를 대뇌피질의 여러 부위로 전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기억 내용이 공고해져 오랫동안 저장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비서술 정보는 어디에 저장될까? 운동 기술은 대뇌의 선조체나 소뇌에 저장되며, 계속적인 자극에 둔감해지는 '습관화'나 한 번 자극을 받은 뒤 그와 비슷한 자극에 계속 반응하는 '민감화' 기억은 감각이나 운동 체계를 관장하는 신경망에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이나 공포와 관련된 기억은 편도체에 저장된다.

10.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기억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저장되는 뇌 부위가 달라진다.
- ② 비서술 정보는 자극의 횟수에 의해 기억 여부가 결정된다.
- ③ 장기 기억되는 서술 정보는 대뇌피질에 분산되어 저장된다.
- ④ 서술 정보와 비서술 정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⑤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의 신호 전달은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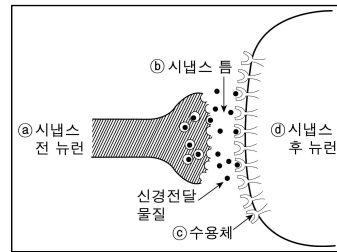
11.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린 시절에 사고로 뇌가 손상된 뒤 심한 간질을 앓던 A씨는 뇌의 내측두엽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지능지수는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서 그는 금방 보거나 들은 내용을 몇 분 동안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 간 집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술 전의 옛집 주소만을 기억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 배운 테니스 실력은 제법 괜찮았다. 비록 언제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나 그는 테니스를 잘 쳤다.

- ① A씨는 감정이나 공포 등을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② 이사 간 집 주소는 서술 정보이므로 기억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③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해마와 그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 ④ A씨가 배운 테니스 기술은 비서술 정보이므로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⑤ 수술 전의 옛집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대뇌피질은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12. 다음은 ㉠을 그린 것이다. 위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제기한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외부의 기억 정보는 어떻게 ㉠까지 전달될까?
- ② ㉠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 ③ ㉡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은 어떤 성질을 지녔기에 ㉢를 자극하는 것일까?
- ④ ㉢를 자극해 발생시키는 전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신호가 전달될까?
- ⑤ ㉠이 신경전달물질에 전기신호를 일으키는 원리는 무엇일까?

13. <보기>는 ㉡에 나타난 추론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추론 과정을 보이는 것은?

< 보 기 >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해마 부위가 손상된 이후 서술 정보 처리 능력이 훼손되었다.
+ 그러나 그는 교통사고 이전의 오래된 기억을 모두 회상해냈다.
→ 이로 보아 해마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다.

- ① 수많은 네티즌들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주장을 비난하고 있어. 독도는 우리 땅임에 틀림없는 거지.
- ② 어제 그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모임이 재미있었던 걸 보면, 모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데에 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 ③ 이 상자 겉면에 '깨지기 쉬움'이라는 주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상자 안에는 잘 깨지는 물건이 들어 있는 거야.
- ④ 유명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의 아내는 대개 미인들이다. 이로 보아 미인들은 운동선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제방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강 하류 지역은 작년에 수해를 입었다. 이곳은 제방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올해 수해를 입을 것이다.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된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으로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던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대된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도피의 또 다른 심리 과정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린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하게 된 인간은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부단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속성상 인간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 속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 합치되는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없는가?

‘자발성’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외부 세계에 새롭게 ㉥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아의 완전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어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 소원하게 만들고 자아를 약화시켜 끊임없는 위험을 느끼게 한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자아보다 더 높은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개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 더하여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근대 이후 인간을 괴롭히던 고독감과 무력감이 극복될 수 있다.

14. 글쓴이가 위 글을 소개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적인 인간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② 근대 이후 획득한 자유를 포기하려는 현상의 원인과 그 심리 과정을 밝히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③ 근원적 불안과 고독감을 해결하려는 근대 이후의 노력을 제시하고 운명에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④ 고독감과 불안감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⑤ 근대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인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근대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였습니다.

15. ㉠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 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
- ②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
- ③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④ 자신의 직업에 대해 천직 의식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으로 전전하는 태도
- 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 각종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태도

16. 위 글로 보아,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은 근대 이전, ㉢은 근대 이후에 찾아볼 수 있다.
- ② ㉡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비해 ㉢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③ ㉡은 자유가 부재한 상태이고 ㉢은 자유를 포기한 상태이다.
- ④ ㉡은 안정감과 소속감, ㉢은 고독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 ⑤ ㉡은 소극적 자유, ㉢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으로 해결된다.

17. <보기>는 어떤 소설의 줄거리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탐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울에서 살던 ‘나(한병태)’는 Y읍의 한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학급 반장 엄석대가 담임 선생님의 두터운 신임과 아이들의 절대적 복종을 받으며 군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석대에 대한 복종의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현실에 대해 저항해 보지만, ‘엄석대’의 힘에 눌려 달리 대항해 볼 방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엄석대의 폭력(궤양)에 행을 담임 선생님께 고발하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식되어 배척받고 소외당한다.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며 그의 시체를 받게 된다. 6학년이 되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엄석대 체제는 몰락하게 되고, 학급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 ①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엄석대가 힘으로 아이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은 일종의 ‘권위주의적 양상’을 띤 ‘도피’에 해당한다.
- ③ 처음에 저항하던 ‘나(한병태)’는 결국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자동인형’으로 전락한다.
- ④ 학급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행동은 ‘소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 ⑤ ‘나(한병태)’의 좌절은 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외적 여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봉건질서의 붕괴로 노비들이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 ② ㉡ : 그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합치되어서 일하기가 수월하다.
- ③ ㉢ : 그는 권력과 결부하여 출세하려고 애를 썼다.
- ④ ㉣ : 나와 소원하게 지내던 그가 별안간 나를 찾아왔다.
- ⑤ ㉤ : 그의 말 속에 내포된 저의가 몹시 궁극하였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0월

날씨가 좋은 날 태양의 빛은 1제곱미터당 약 1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태양전지는 이렇게 풍부하면서도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개발된 기기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주재료인 실리콘을 가공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고가의 기기에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제조 비용이 적게 드는 산화티탄을 광촉매로 이용한 태양전지가 개발되었지만, 산화티탄은 발전(發電)에 이용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약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대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외선은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약 4~5%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 광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것이 바로 ‘색소증감형 태양전지’이다.

식물들은 햇빛의 에너지를 거의 100%에 가깝게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물의 정교한 시스템을 모방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한 기술이 바로 인공 광합성이다. 다만,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유기물과 산소를 만드는 데 반해, 인공 광합성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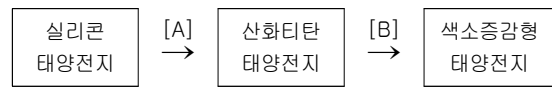
식물이 햇빛을 받아들여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엽록소 등의 색소가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는 이러한 광합성의 원리를 모방하여, 파장이 500~600나노미터인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전자가 쉽게 들뜰 수 있는 광감응 염료(색소)를 산화티탄 박막에 흡착함으로써 더 많은 태양빛을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빛에 의해 들뜬 색소의 전자가 산화티탄의 전도대에 주입되고 이것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며, 전자를 방출한 색소는 전해액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I)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다시 전기적인 중성 상태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 전지에는 지름이 10~30나노미터인 산화티탄의 미세한 입자를 전극으로 사용하는데, 미세 가공을 통해 산화티탄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색소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는 색소 분자가 모은 빛에너지의 50% 이상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전의 태양전지보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수소도 훨씬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광촉매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함으로써 산소와 수소를 얻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얻은 전기로 다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과거의 방식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 게다가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박막으로 만들기도 쉬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PET필름을 기반으로 사용한 전지도 개발되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인공 광합성의 의미
- ② 태양전지의 개발 이유
- ③ 실리콘 태양전지의 구조
- ④ 색소증감형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
- ⑤ 색소증감형 태양전지의 개발과 활용

20. 위 글을 참고할 때, 다음 [A]와 [B]의 과정에서 작용한 주요 동인(動因)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A] | [B] |
|---------------|------------------|
| ① 크기를 축소함 | 내구성을 강화함 |
| ② 제조 공정을 단축함 | 이용의 범위를 확대함 |
| ③ 제조 비용을 줄임 |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임 |
| ④ 재료의 범위를 확대함 | 작동 가능한 조건을 확대함 |
| ⑤ 설치 과정을 단순화함 | 생산되는 에너지의 품질을 높임 |

21.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식물의 광합성과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 항목	식물의 광합성	색소증감형 태양전지
① 이용하는 원료	이산화탄소, 물	요오드, 물
② 생산물	유기물, 산소	전기, 수소, 산소
③ 에너지원	태양에너지	
④ 색소의 주된 기능	에너지 흡수와 변환	
⑤ 에너지 수용의 중요 기제	엽록소	색소가 흡착된 산화티탄

22.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네가 힘을 써서 새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
- ② 너는 왜 자꾸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지?
- ③ 이곳은 합성수지로 책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 ④ 판소리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 ⑤ 상대를 꿈쩍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혹은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스는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 얻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스는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마)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은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1.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
- ② (나): 제3자 효과의 개념
- ③ (다): 제3자 효과 이론의 유형
- ④ (라):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
- ⑤ (마): 제3자 효과 이론의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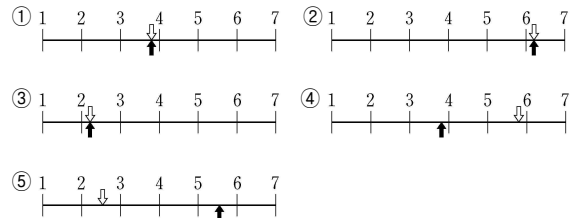
2.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 중,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은? [1점]

<일러두기>

(자신:↓, 타인:↑)

1: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7:영향을 많이 받는다.



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돈을 얻을 곳이 또 어디 없을까?
- ② 책에서 얻은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
- ③ 여행 중에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
- ④ 발언권을 먼저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⑤ 늘그막에 자식을 얻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4.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검열과 규제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대중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일찍이 경제학자 클라크는 산업을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거나 생산하는가, 그 원료를 가공하는가, 가공된 원료를 유통하는가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가령,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 통신 산업은 어디에 속할까? 이처럼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해졌고, 실제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대분류, 중분류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 이 분류 방법은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연구 개발 투자가 많은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본다.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 개발 집약도’를 사용하며, 그 평균이 4% 이상이면 그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 방법은 첨단 기술 산업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산업의 평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로는 첨단 기술 산업이지만 그 안에 얼마든지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에서 비롯된 정보 기술 산업은 이미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등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기술 이외에 시장 수요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 산업, 실버산업, 레저 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에는 고정된 기준이나 체계보다 신축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구매력을 가진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 새로운 산업이 ㉠ 생겨나고 오래된 산업이 ㉡ 사라지는 현상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 산업의 정의나 분류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
- ② 표준산업분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연구 개발 집약도가 4% 이상인 산업이라도 그 안에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 ④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시장 수요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

6. <보기>의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학교는 기존의 어느 학과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그 학문의 명칭을 사용한 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로봇공학을 가르치기 위해 로봇공학과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 분자생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학문의 명칭을 그대로 학과 명칭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나 관점 중에 [A] 과 유사하다.

- ① 클라크의 기준
- ② 표준산업분류의 기준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 ④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
- ⑤ 시장 수요를 고려하는 관점

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존의 분류로 파악하기 힘든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 ②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 ③ 다양한 산업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 ④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를 찾기 위하여
- ⑤ 동일한 산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8.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 : ㉡와 다른 하나는? [1점]

- ① 태어나다 : 자라다
- ② 들어가다 : 나오다
- ③ 올라오다 : 내려가다
- ④ 떠오르다 : 가라앉다
- ⑤ 나아가다 : 물러나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수능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①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동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②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동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는 동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③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동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④ 이루어진 것이다. 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⑥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 + 3 = 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동글다’를 아는 것과 다르다. ‘ $2 + 3 = 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⑦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알’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10.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 $2 \times 4 = 8$ ’은 모른다.
-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紧张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11.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12. ㉠~㉤을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천명(闡明)되기도 ② ㉡ : 습득(習得)한
- ③ ㉢ : 의거(依據)하여 ④ ㉣ : 형성(形成)된
- ⑤ ㉤ : 별개(別個)의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수능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샌들은 ㉠ 다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움직임으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작품만으로 작가가 왜 것처럼 분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 수상이 몇 대가 부수어진들 대중 매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위 ㉡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중 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에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다. 그 결과 회화는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을 찾았지만,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뿐이었다.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없었을까?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특히 ㉢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 비판적 의도를 표출했는데, ㉧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다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리히텐슈타인이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의 양식을 본떠 제작한 ㉨ 과광!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 방법 같은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과광!과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과광!과는 추상화처럼 형식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내용도 역시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관객들이 과광!과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으로는 전면적인 거부가 가장 효과적이다.
- ② 근본주의 화가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 ③ 영국의 팝 아트는 미국에 비해 비판적 시각이 부족했다.
- ④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 ⑤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근본주의 회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반전(反戰)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사라진 추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그리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작품의 의미가 공허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5. ㉢~㉥ 중, <보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영국 미술가 해밀턴은 1964년 당시 영국의 정치가 휴 게이츠겔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명화 속 과일 휴 게이츠겔의 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이 정치가의 확대된 얼굴 사진을 놓고 그 일부를 공포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처럼 바꾸어, 이 정치가가 비인간적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관람객의 입장에서 과광!과가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명랑한 색감과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부조화
- ②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요소들 간의 충돌
- ③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 방법 간의 불협화음
- ④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 ⑤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리는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리는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타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리와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타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리는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타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는 스키타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타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데이라 섬보다 대기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타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타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리는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그 후 스키타파렐리가 몇 번 더 ‘운하’의 관측을 보고하자 다른 천문학자들도 ‘운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운하’들이 화성 지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명’하곤 했던 것이다.

17.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천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화성 지도
- ② 설명과 해명: 그리와 스키타파렐리
- ③ 과학의 신화: 화성 생명체 가설
- ④ 과학사의 그늘: 화성의 운하
- ⑤ 과학의 방법: 경험과 관찰

18.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지리학의 방식으로 채색함
- ③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19. 위 글의 사례와 <보기>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보 기>—

17세기 초 갈릴레이는 당시로서는 배율이 가장 높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을 관측한 뒤, 달에서 산과 계곡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갈릴레이는 이 발견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달은 천상계의 물체이므로 완전한 구형이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갈릴레이의 망원경이 달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는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이 개발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무너질 때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 ① 망원경에 대한 불신이 개입된 점
- ②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논란이 된 점
- ③ 관측 결과의 수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 ④ 천체의 지형에 대한 관측을 소재로 한다는 점
- ⑤ 권위자의 주장이 오류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점

20.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측에서 사용하는 과학 장비의 우수성이 논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② 과학적 관찰 결과가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③ 어떠한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 ④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
- ⑤ 지금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겠군.

21.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도록 ㉢을 바꾸어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이롭게도
- ② 굉장하게도
- ③ 기발하게도
- ④ 갑작스럽게도
- ⑤ 어처구니없게도